

모두들 평안하신지요?

한국은 만이 추워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2017년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었다면 더욱 어렵고 힘들었겠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어떤 해 보다도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랄 만싱 가족을 위하여

저희 M 지역 시골의 교회의 집사인 랄만싱 집사가 지난 2월에 마을의 한 살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가장인 랄만싱과 그 아들 3명이 모두 현재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 사건은 전혀 이 가족과는 관계없는데 이 가족이 그 마을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믿지 않는 온 마을 사람들이 무고하게 이 가족에게 범인의 누명을 씌워서 교도소에 넣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곧 나올 수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변호사를 세워서 소송을 했는데 변호사도 경찰과 상대방에서 돈을 먹고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도 바꾸고 가능하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들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온 가족의 상황은 지난 10개월 동안 정말 눈으로 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져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4명의 가장들이 빨리 풀려 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암송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다.

지난 5개월 전부터 저희들의 모든 사역지에 성경 암송대회를 매달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60구절 성경 암송카드를 가지고 영어와 힌디로 모두 120구절을 아이들에게 외우도록 하였습니다. 매달 대회 형식으로 암송을 했는데 매번 80-1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여서 전체 120구절을 암송하는 아이들도 10여명이나 되었습니다. 성경 암송은 정말 놀라운 능력과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줍니다. 아이들이 암송을 하면서 믿음이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자라고 월요일 마다 하는 심야 기도회도 30여명의 청소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성탄절에는 근처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을 초청해서 성경암송도하고 워십과 간증도 하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준비하면서 많이 들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아이들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물 시추와 교회 건축

지난달에는 아직도 먹을 물이 없어서 도랑물을 걸러서 마시고 있는 어려운 시골 지역에 우물을 파 주었습니다. 140미터 깊이까지 파들어 가서 정말 깨끗한 생수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한 후원자님께서 후원을 해 주셔서 약 500여명의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육체가 마시는 물도 깨끗한 물을 마시지만 우리의 생명의 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우물을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준비한 니와스 지역의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잘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 가정에서 모이기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인하여 약 2년 이상 기도하던 것이 한국의 한 교회에서 후원을 해 주어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은 우리 교인이 헌납을 하고 또 교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약 250만원의 헌금을 모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 1월 전에는 완공을 할 예정인데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주의 사람들의 펍박이 없이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델리 가스실이 되다.

한국의 매스컴을 통하여 들어서서 대부분 아시다시피 매년 겨울만 되면 델리는 심각한 공기 오염으로 하나의 가스실로 변합니다. 올해는 겨울에 들어오자 말자 너무 심각한 오염이 되어서 모든 학교가 며칠 강제 휴교 처리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북경보다도 몇 십배 높은 오염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 종일 밖에서 사역하는 저희들에게는 더욱 힘든 나날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낮에만 공기 오염에 노출되어 있지만 델리는 노숙자들이 워낙 많아서 밤에도 그 심각한 공기 오염의 도로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 사역 가운데 그들에게 마스크를 사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약 1000여개의 마스크를 사서 나누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마스크 하나가 그들의 하루 임금 정도 되는 돈이다 보니 그들이 마스크를 살 엄두를 못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긍휼의 손길이 펼쳐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들

델리는 일 년 기온 연교차가 약 45도 이상 납니다. 그 말은 한여름 5월, 6월은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고 한겨울 12월, 1월은 영상 4-5도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집들이 난방개념이 없다보니 인도 사람들은 여름보다도 겨울을 훨씬 더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특별히 겨울에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들은 영상 14도 이하만 떨어지면 저체온 증으로 동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가 매년 겨울이 되면 후원자들이 주시는 헌금으로 노숙자들을 위하여 담요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합니다. 올해도 이미 몇 번 나누어 줬고 또 현재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간에 계속해서 노숙자들에게 또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담요 한 장 값의 약 만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담요 한 장이면 겨울을 날 수 있기에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이 가까우면 저희들이 나누어 주러나가지 않아도 센터에 담요를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왕이신 예수님의 생일 축하

이제 다음 주간이면 저희 사역지 전체가 성탄 행사하는 주간이 됩니다. 교회와 센터 등에서 일주일 내내 성탄 행사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인들은 성탄 행사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 때가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 행사를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선명한 복음이 성탄에 전해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일 년에 한번 가장 큰 선물을 받는 성탄이 되면 너무 기대하고 설레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발이나 가방 등 꽤 큰 선물을 하는데 올해도 약 2000여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지고 기뻐하는 아이들이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팀이 전도하러 갑니다.

작년부터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팀을 조직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올해도 역시 25일 성탄 예배를 마치자 말자 일주일 2000KM 이상 떨어진 시골 지역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가서 청소년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 도전을 받았는데 올해는 자발적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해서 갑니다. 올해는 25명의 청소년 지도자들이 5군데에서 매일 한 마을씩 집회와 전도를 합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추운데 모든 팀들이 건강 잃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 팀이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채워 주시고 특별히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같이 갑니다. ^^

저희 가정이 지난달에 5년 반 만에 페인트칠을 한다고 한 달 가까이 고생을 했습니다. 밖에는 공기 오염으로 인하여 어려웠고 집 안에서는 페인트칠한다고 냄새와 먼지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주간에 저는 다시 등 쪽으로 대상포진이 와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는 않았는데 가장 바쁜 시기에 아파서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간에 모든 성탄 행사와 또 그다음 주간에 이어지는 선교 팀 전도 여행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아프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사역 할 수 있는 육체를 주소서.....

오랜만에 이 메일로 쓰는 편지가 되어서 길어졌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